

#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2021. 12.

※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유럽연합 Eurostat의 「Structure of Earnings Survey」를 분석한 결과

## ◀ 목 차 ▶

### 1. 주요 분석결과 / 1

- 가.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수준은 2.95배 / 1
- 나. 우리나라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는 일본, EU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2
- 다.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수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아 / 5
- 라. 2001년 대비 2020년 근속연수별 임금 증가율, [韓] 전 구간에서 크게 증가, [日] 고연차 구간은 오히려 감소 / 7
- 마. 우리나라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9

### 2. 시사점 / 11

[첨부] 통계 출처 및 주요 가정 / 13

# 1 주요 분석결과

## 가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수준은 2.95배

□ (근속 30년 이상 임금 ÷ 근속 1년 미만 임금) 우리나라 전산업\*에서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697.1만원으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임금총액 236.5만원보다 2.95배 많음(2020년 기준).

\* 비농민간 전산업 기준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상 A(농업, 임업 및 어업), 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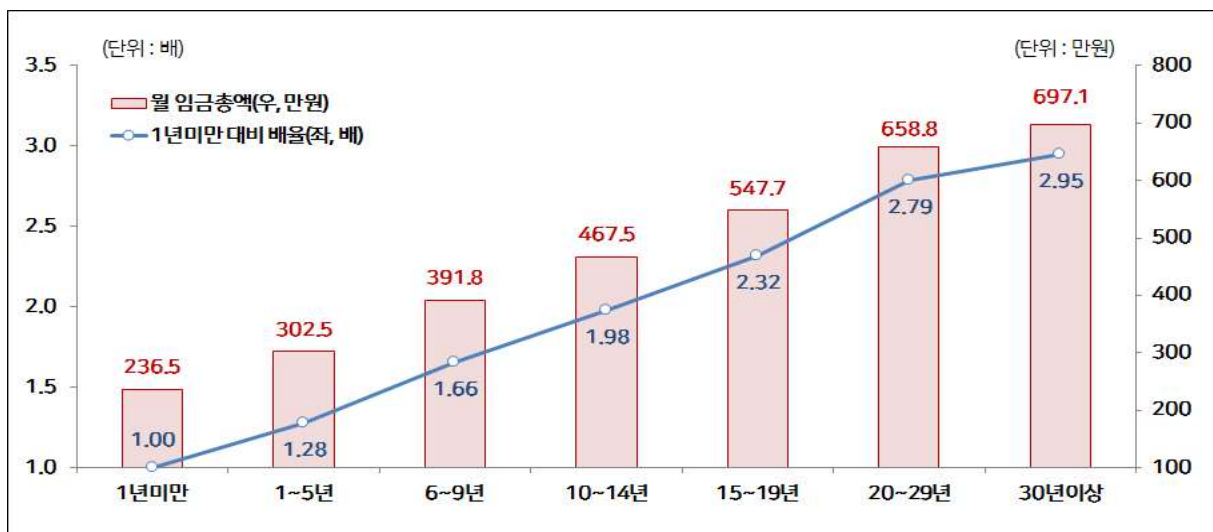
\*\*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근로자의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 임금총액(정액급여 + 특별급여)

< 표 1. 근속연수별 월 임금총액 및 격차(2020) >

구분	1년 미만	1~5년	6~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
월 임금총액 (만원)	236.5	302.5	391.8	467.5	547.7	658.8	697.1
1년 미만 대비(배)	1.00	1.28	1.66	1.98	2.32	2.79	2.95

주 :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기준, 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 그림 1. 근속연수별 월 임금총액 및 격차(2020) >



주 :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기준, 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 우리나라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는 일본, EU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근속 30년 이상 임금 ÷ 근속 1년 미만 임금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근속 1년 미만 임금(초과급여 제외 임금총액)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은 2.95배로 일본(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한국·일본 2020년, EU 15개국 2018년\*\* 기준).

\* 2021년 기준 유럽연합(EU)은 27개국이나 SES(Structure of Earnings Survey)에 임금정보가 비교적 충실한 독일, 프랑스, 영국(EU 탈퇴국이나 임금자료는 제공), 이탈리아 등 15개국으로 비교대상 한정

\*\* 한국과 일본은 2020년 기준 임금 비교가 가능하나, EU 15개국은 2018년 기준 임금이 최신자료로 비교 가능. 각 국가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는 단기간에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를 활용

< 표 2. 한·일·EU(15개국 평균)의 근속 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격차 >

구분	근속 1년 미만(A)	근속 30년 이상(B)	임금배율(B÷A)
한국(2020년)	100.0	295.0	2.95배
일본(2020년)	100.0	227.0	2.27배
EU(15개국) 평균(2018년)	100.0	165.0	1.65배

주 : 1. 비농민간전산업, 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근속 1년 미만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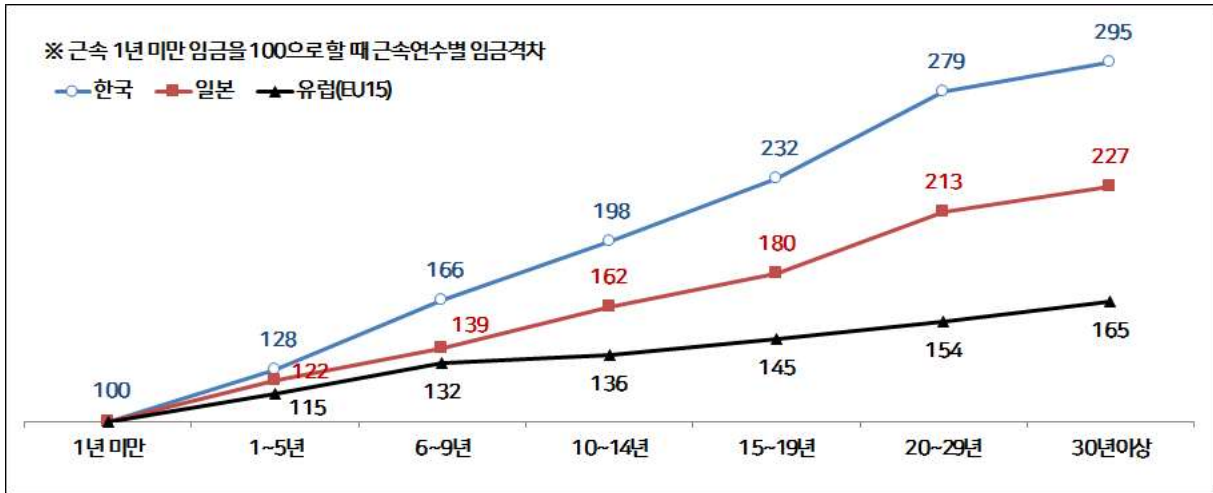
2. (韓)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日) 10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 (EU) 10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후생노동성,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2018

□ (한·일·EU 근속연수 구간별 임금 격차 비교) 근속 1년 미만 임금(=100) 대비 임금 격차는 모든 근속연수 구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EU(15개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유럽 국가들의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 한국의 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완만하지만 유럽 보다는 가파른 모습

< 그림 2. 한·일·EU(15개국 평균)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



※ <표 3>의 주석 및 자료와 동일

- 10년 미만 저연차 구간에서 임금 격차의 기울기도 우리나라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 근속 1년 미만 임금(=100) 대비 6~9년 차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166으로 일본 139, EU 132에 비해 월등히 높음.

※ 한국, 일본, EU(15개국 평균)의 10년 미만 근속구간별 임금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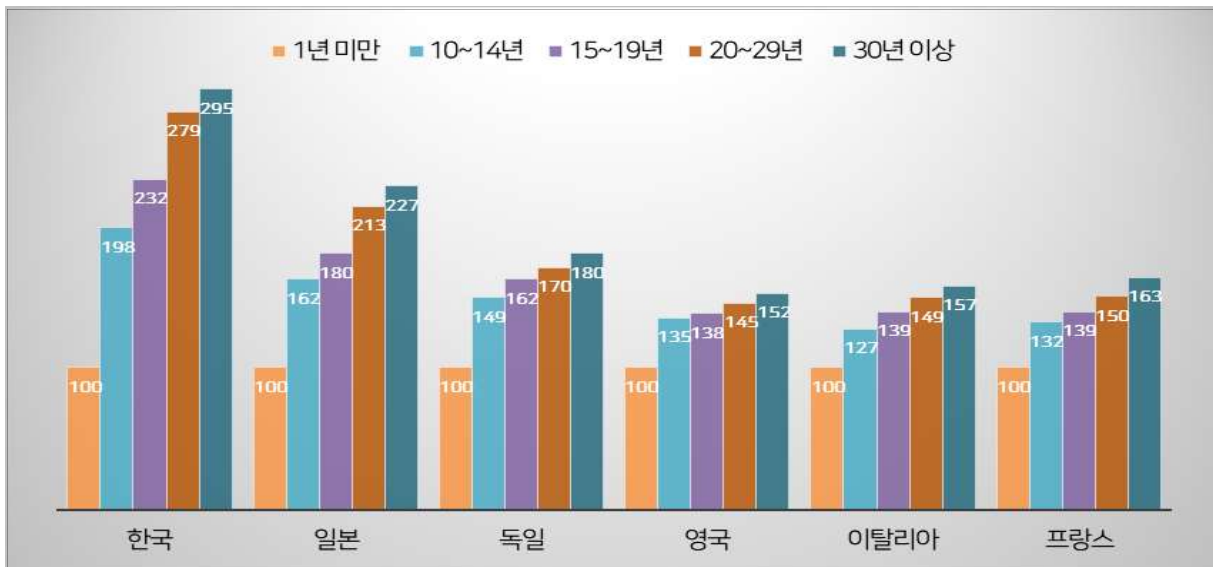
[韓] 100 (1년 미만) → 128 (1~5년) → 166 (6~9년)

[日] 100 (1년 미만) → 122 (1~5년) → 139 (6~9년)

[EU] 100 (1년 미만) → 115 (1~5년) → 132 (6~9년)

- 한국, 일본, EU 주요 4개국(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의 임금 격차는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격차의 크기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

< 그림 3. 한·일·EU 주요국(獨, 英, 伊, 佛)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



※ <표 3>의 주석 및 자료와 동일

- EU 15개국 중 근속 1년 미만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수준이 작은 국가는 핀란드(1.24배), 스웨덴(1.30배)이었고, 상대적으로 큰 국가는 오스트리아(2.03배), 그리스(2.09배)로 나타남.

< 그림 4. 한국, 일본, EU(15개국)의 근속 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 >



※ <표 3>의 주석 및 자료와 동일

< 표 3. 한·일·EU(15개국)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

구분	1년 미만	1~5년	6~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
한국	100	128	166	198	232	279	295
일본	100	122	139	162	180	213	227
EU(15) 평균	100	115	132	136	145	154	165
그리스	100	109	141	159	167	186	209
네덜란드	100	117	151	166	170	182	189
덴마크	100	119	133	138	139	146	154
독일	100	110	135	149	162	170	180
룩셈부르크	100	123	137	157	154	168	187
벨기에	100	116	128	133	145	150	143
스웨덴	100	123	135	140	139	139	130
스페인	100	111	126	130	145	166	184
아일랜드	100	111	139	145	162	173	188
영국	100	117	134	135	138	145	152
오스트리아	100	114	136	150	162	175	203
이탈리아	100	107	122	127	139	149	157
포르투갈	100	112	130	136	149	166	197
프랑스	100	113	124	132	139	150	163
핀란드	100	115	122	126	130	133	124

주 : 1. 비농민간전산업, 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

2. (韓)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日) 10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 (EU) 10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기준

3. 일본은 자료 제약상 1~5년은 일본 통계 1~4년, 6~9년은 일본 통계 5~9년 기준을 사용

자료 : 고용노동부,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후생노동성,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2018

## 다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수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아

### □ (근속 1년 미만 vs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 한·일 비교,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우리나라의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은 2,744달러로 일본(2,392달러) 대비 14.7% 높게 나타남(2020년 PPP 기준).

\* 각 국가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산출하며(OECD 등) 국가 간 경제, 임금수준 비교 시 활용

○ 근속 30년 이상에서는 우리나라가 8,089달러로 일본(5,433달러)보다 48.9%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

○ EU는 통계자료의 한계 및 임금체계의 특성상 한국·일본과 임금수준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근속이 낮은 근로자의 임금(근속 1년 미만 기준 3,356달러)은 EU가 우리보다 높고 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근속 30년 이상 기준 5,543달러)은 우리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됨 (2018년 PPP 기준).

※ 상용직 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한국, 일본과 달리 EU(15개국 평균) 통계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EU와 임금수준을 직접 비교하지 않음. 다만, EU 역시 장기근속 근로자는 상용직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어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표 4. 한·일·EU(15개국 평균)의 근속 1년 미만, 근속 30년 이상 월 임금수준(PPP 기준) >

구분	근속 1년 미만(A)	근속 30년 이상(B)	임금차액(B-A)
한국(C, 2020년)	2,744.0달러	8,088.7달러	5,344.7달러
일본(D, 2020년)	2,392.3달러	5,432.9달러	3,040.6달러
한·일 격차(C÷D)	14.7%	48.9%	75.8%
EU 15개국 평균(2018년)	3,356.1달러	5,543.3달러	2,187.1달러

주 : 1. 비농민간전산업, 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  
 2. (韓)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日) 10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 (EU) 10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기준  
 3. PPP환율은 2020년 원/달러 861.8원, 엔/달러 102.8엔, 2018년 유로/달러 0.713유로 기준(OECD, 2021.11.09. 조회)

자료 : 고용노동부,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후생노동성,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2018; OECD

□ (근속 1년 미만 vs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 한·일 비교, 시장환율 기준)  
 우리나라의 근속 1년 미만 임금은 2,004달러로 일본(2,304달러) 보다 13.0% 낮으나, 근속 30년 이상에서는 우리나라가 5,907달러로 일본(5,232달러) 대비 12.9% 높게 나타남(2020년 시장환율 기준).

○ EU 15개국 평균 월 임금수준은 근속 1년 미만이 2,826달러, 근속 30년 이상은 4,668달러(2018년 시장환율 기준)

< 표 5. 한·일·EU(15개국 평균)의 근속 1년 미만, 근속 30년 이상 월 임금수준(시장환율 기준) >

구분	근속 1년 미만(A)	근속 30년 이상(B)	임금차액(B-A)
한국(C, 2020년)	2,004.0달러	5,907.4달러	3,903.4달러
일본(D, 2020년)	2,304.0달러	5,232.4달러	2,928.4달러
한·일 격차(C÷D)	△13.0%	12.9%	33.3%
EU 15개국 평균(2018년)	2,826.4달러	4,668.3달러	1,841.9달러

주 : 1. 비농민간전산업, 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  
 2. (韓)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日) 10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 (EU) 10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기준  
 3. 환율은 2020년 원/달러 1,180.1원, 엔/달러 106.8엔, 2018년 유로/달러 0.847유로 기준(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1.11.09. 조회)  
 자료 : 고용노동부,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후생노동성,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201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라**

**2001년 대비 2020년 근속연수별 임금 증가율, [韓] 전 구간에서 크게 증가, [日] 고연차 구간은 오히려 감소**

- (2001년 vs 2020년 누적 임금 증가율 한·일 비교) 2001년과 비교한 2020년 우리나라 월 임금총액은 전(全) 근속연수 구간에서 증가한 반면, 일본은 저연차 구간에서만 소폭 증가하였을 뿐 고연차 구간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한국) 2001년 대비 2020년 근속연수별 임금수준 누적 증가율은 근속 구간별로 83.9%(30년 이상)~135.6%(1년 미만) 수준
  - (일본) 2001년 대비 2020년 근속연수별 임금수준 누적 증가율은 △10.9% (30년 이상)~10.4%(1년 미만) 수준의 정체된 모습을 보임.
    - 지난 20년간 일본의 임금수준은 근속 15년 미만 구간에서만 0.1~10.4% 증가하였고, 근속 15년 이상 구간에서는 오히려 임금수준이 감소(△3.8~△10.9%)한 모습을 나타냄.

< 표 6. 한·일 근속연수 구간별 월 임금총액 비교(2001년 vs 2020년) >

(단위 : 천원, 천엔)

구분	1년 미만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한 국	2020(A)	2,364.8	2,960.3	3,826.2	4,675.0	5,476.6	6,303.1	6,953.5	6,971.0
	2001(B)	1,003.6	1,385.1	1,808.2	2,279.9	2,592.5	3,046.7	3,464.8	3,791.3
	증가율 (A/B)	135.6%	113.7%	111.6%	105.1%	111.2%	106.9%	100.7%	83.9%
	연평균 증가율	4.6%	4.1%	4.0%	3.9%	4.0%	3.9%	3.7%	3.3%
일 본	2020(C)	246.0	301.2	342.8	397.7	442.9	490.1	561.9	558.7
	2001(D)	222.9	287.2	335.1	397.2	460.3	518.9	589.0	627.3
	증가율 (C/D)	10.4%	4.9%	2.3%	0.1%	-3.8%	-5.6%	-4.6%	-10.9%
	연평균 증가율	0.5%	0.3%	0.1%	0.0%	-0.2%	-0.3%	-0.2%	-0.6%

주 : 한국은 10인 이상 사업체, 일본은 10인 이상 기업체 기준, 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 **(일본 임금 증가율 정체 이유)**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지속된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노동생산성이 약화 되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력 구성의 변화 등 구조적 요인 작용

○ 일본의 임금 증가율 정체는 ①일본 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②생산가능인구 감소, ③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력 구성비 확대 (여성, 비정규직, 고용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 낮은 임금이 적용되는 고령 근로자 증가 등), ④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금인상 최소화 전략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 일본은 1994년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고 2013년에는 65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기업들은 30~40대 신규채용을 줄이고 임금상승을 억제시키며 인건비를 관리한 것으로 추정

< 참고 > 일본의 연도별 임금 수준 추이(2001~2020년, 전산업)

(단위 : 천엔, %)

연도	구분	소 계(= 소정내급여 + 상여 및 기타 특별급여)	
		소정내급여	상여 및 기타 특별급여
2001		391.6(1.2)	85.8(1.2)
2005		377.4(0.4)	75.4(1.5)
2010		362.1(-1.7)	65.9(-10.9)
2015		378.4(2.4)	74.4(6.1)
2016		378.5(0.0)	74.5(0.1)
2017		379.8(0.3)	75.5(1.3)
2018		383.8(1.1)	77.6(2.8)
2019		386.9(0.8)	79.2(2.1)
2020		383.2(-1.0)	75.5(-4.7)

주 : 1. 10인 이상 기업체 상용 근로자, 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연도

**마**

**우리나라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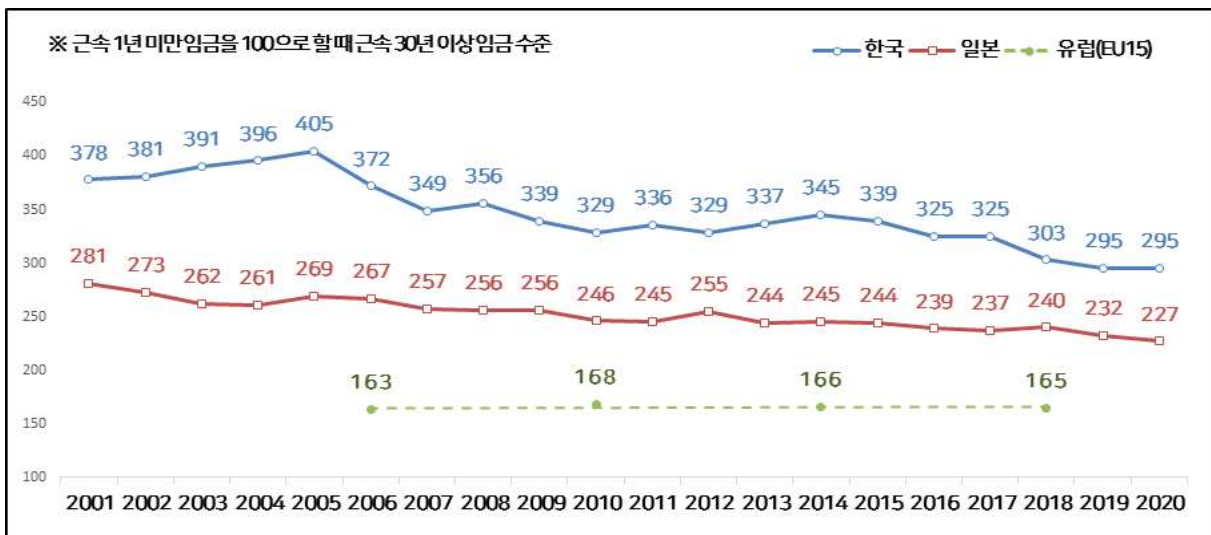
□ (근속에 따른 임금 격차 변화 추이 한·일·EU 비교) 우리나라의 연공에 따른 임금 격차(근속 30년 이상 임금 ÷ 근속 1년 미만 임금)는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장기간 지속해 왔으나, 2000년 이후 근속연수간 임금 격차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우리나라가 2006년 372에서 2018년 303으로 낮아졌고, 일본은 2006년 267에서 2018년 240으로 낮아짐. EU(15개국 평균)는 같은 기간 163에서 165로 큰 변화 없음.

○ 우리나라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가 꾸준히 감소(2001년 378→2020년 295)하고 있기는 하나, 격차의 크기(연공성)는 일본, EU에 비해 전(全)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저성장, 고령화, 글로벌 경쟁 격화 같은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임금 연공성을 다소나마 완화한 것으로 추정

< 그림 5. 한·일·EU(15) 근속 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격차 추이(2001~2020) >



주 : 1. 비농민간전산업, 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  
 2. (韓)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日) 10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 (EU) 10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기준  
 3. EU15개국 자료는 2006년부터 가용 가능하며 현시점 최신자료는 2018년 기준임. 또한 매년 자료를 제공하는 한국, 일본과 달리 4년 단위로 자료를 제공하여(2006, 2010, 2014, 2018년)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연도;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연도;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각연도

< 표 7. 한·일·EU(15)의 근속 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격차 추이(2006~2018) >

구분	2006	2010	2014	2018
한국	372	329	345	303
일본	267	246	245	240
EU (15) 평균	163	168	166	165
그리스	233	213	238	209
네덜란드	159	-	196	189
덴마크	148	147	149	154
독일	205	210	196	180
룩셈부르크	189	217	182	187
벨기에	145	149	150	143
스웨덴	-	-	127	130
스페인	184	190	185	184
아일랜드	200	145	-	188
영국	158	161	168	152
오스트리아	203	203	204	203
이탈리아	176	174	162	157
포르투갈	201	175	189	197
프랑스	149	156	158	163
핀란드	128	124	124	124

주 : 1. (韓)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日) 10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 (EU) 10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기준  
 2. 임금은 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 '-'는 정보없음을 의미  
 3. EU15개국 자료는 2006년부터 가용 가능하며 현시점 최신자료는 2018년 기준임. 또한 매년 자료를 제공하는 한국, 일본과 달리 4년 단위로 자료를 제공하여(2006, 2010, 2014, 2018년) 해당연도 기준에 맞추어 비교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연도;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연도;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각연도

①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는 한국 > 일본 > EU 順으로 크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 우리 임금 연공성이 높은 원인은 주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보상이 증가하는 호봉급 중심의 연공형 인사·임금제도가 지배적인데 기인
  - 우리나라 호봉급 운영 비중은 2010년 76.2%에서 2020년 54.9%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상용 100인 이상 사업체)

< 표 8. 우리나라 사업체 규모별 호봉급 도입 비율 추이(단위 :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0인 이상	76.2	73.2	75.5	71.9	68.3	65.1	63.7	60.3	59.5	58.7	54.9
300인 이상	81.0	78.1	79.7	79.7	72.3	69.2	68.4	62.9	61.1	60.9	59.1
1,000인 이상	-	-	-	-	-	-	-	-	-	68.5	69.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각연도

-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근로자는 개인이 수행하는 일의 가치나 성과 보다는 주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점증하는 근속 프리미엄을 수령, 연차가 올라갈수록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가 커지며 임금 격차도 확대
    - 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생산성의 괴리는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을 높이고, 신규채용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일부 고성과자에게 가야 할 보상이 저성과자에게 이전되는 불공정을 초래하여 근로자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 저해
- ⇒ 과도한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 초래

② (EU, 일본의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직무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 국가들의 임금은 근속연수가 길어지면서 증가하는 숙련도에 따라 완만하게 상승하며, 역할·성과중심 임금체계를 확산시킨 일본의 임금 연공성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

○ EU, 일본 기업의 경우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보다 임금 연공성이 낮고 완만한 모습

※ EU(15개국 평균), 일본, 한국의 1년 미만 임금 대비 30년 이상 임금 추이(배)

[EU] 1.63('06)→ 1.68('10)→ 1.66('14)→ 1.65('18)

[日] 2.67('06)→ 2.46('10)→ 2.45('14)→ 2.40('18)

[韓] 3.72('06)→ 3.29('10)→ 3.45('14)→ 3.03('18)

⇒ 유럽은 전통적으로 직무급을 가장 대표적인 기본급 임금체계로 운영, 산별노조가 강한 국가는 교섭과 협약을 통해 직무중심의 임금등급과 수준이 결정되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정부 주도로 직무중심 임금정책이 강조됨(한국노동연구원, 2015).

⇒ 일본은 과거 연공중심 임금체계를 운영해왔으나, 저성장·고령화, 장기불황, 60세 정년 의무화 등을 계기로 2000년 초반부터 근로자의 역할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역할급 임금체계를 확산시켜 연공성을 상당히 완화(고용노동부, 2016)

③ (일의 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인사임금제도 개편 시급) 우리나라 임금의 높은 연공성, 과도한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의 가치와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인사·임금제도로 전환이 필요

※ 「별도 첨부자료. 기업 임금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 참조

○ 직무·성과중심 인사·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통한 동기 부여로 개인의 발전과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가능케 함.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고령화 시대 대응 등을 위해서도 현행 연공형 인사·임금제도의 개편은 시급한 과제로, 노사의 적극적 노력 필요

**1. 통계 출처**

-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시자료 분석
- **(일본)**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활용
- **(유럽연합)**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이하 SES\*)」 활용
  - \* SES는 4년 주기로 조사(2006, 2010, 2014, 2018년), 최신자료는 2018년 기준
  - ※ 2021년 기준 유럽연합(EU)은 27개국이나 SES(Structure of Earnings Survey)에 임금정보가 비교적 충실한 독일, 프랑스, 영국(EU 탈퇴국이나 임금자료는 제공), 이탈리아 등 15개국으로 비교대상 한정
    - ▶ 분석대상 국가(15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2. 주요 가정**

- **(기업규모)** 10인 이상 사업체(일본은 10인 이상 기업체)
- **(임금항목)** 초과급여를 제외한 月 임금총액(정액급여 + 특별급여)
- **(근로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용직, EU는 전체근로자
- **(근속연수)**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들은 1년 미만, 1~5년, 6~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
  - 일본은 후생노동성 자료 제약 상 1~4년, 5~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으로 분석
  - ※ 한·일 간 근속연수 구간별 비교(7p)에서는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 기준에 맞춰 분석

